

# 불꽃처럼 타오른 한 평론가의 인간적 뒷모습

「김현전집-자료집」

문학에 어둡기만 하던 나에게 글읽기의 즐거움을 주신 분이 계셨다. 그분은 문학평론가이자, 대학교수셨지만 그분의 글은 문학적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게, 고개를 끄떡일 수 있게 합리적이고도 논리적인 글로 나를 책읽기의 즐거움과 괴로움 속으로 몰아가셨다. 광복한 사회에서도 유유한 글로, 젊은이들을 사랑하신 그분은 김현(본명: 김광남) 선생님이시다.

나는 한 번도 그분을 뵈 적이 없지만, 그리고 그분의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셨지만, 선생의 평론에 나오는 말씀처럼, '잊혀지지 않음으로 영원한 삶을 사신'(기형도 시집 「일속의 검은 잎」 발문)분이셨다. 일인당 단행본을, 1년에 3권도 읽지 않는 사이비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 분은 문학이 개인의 삶에 넓고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따뜻한 글을 유산으로 남기시고 그분의 신에게로 돌아가셨다.

김현 선생 사후에 제자들과 동료들의 힘으로, 기존의 글들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한 「김현전집」은 70년대와 80년대 우리문학의 이정표이자 하나의 역사이다. 세밀한 문학이론에서부터 무협지에 이르는 이 땅을 스쳐간 많은 글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서는 도저히 한 사람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는 방대한 분량의 글이며, 어느 하나 정성이 결여된 곳이 없다. 필화와 표절 그리고 이름으로 글을 쓰는 어지러운 문단에 그분은 선비의 지조를 지키시려 글을 쓰셨던 것이다.

「김현전집」의 마지막 권인 '자료집'은 발표되지 않은 습작과 그분을 추모하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고 전집의 목적이 뒷편에 기록되어 있다. 선생께서 주도하신 문학과 지성사의 연혁부터 투병생활까지 선생의 주위를 묘사한 이 자료집은 불꽃처럼 타오른 한 인간의 뒷모습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4·19세대로서 동료이자 각자의 스승이었던 김지하, 김병익, 황동규로부터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세대였던 황지우, 이성복 등—선생의 말처럼 젊은 시인에 해당하는—온몸으로 글을 쓴 작가들이 비통과 울분의 힘으로 쓴 이 책은 인간과 인간이 얼마나 친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느낌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시에 그 느낌은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이기도 하다.

이 '자료집'으로 일단 선생의 글들은 잠정적으로 완성된 생명체가 되었는데 완전한 생명력을 얻어, 게으른 우리를 꾸짖게 되는 길은

선생의 글을 읽고, 그 글보다 더 좋은 글들을 쓰고 읽게 되는 것 이리라. 자료집을 두려움과 경연에 떨며 읽었다. 그 공포는 죽음이 아가간 상처라기보다는, 인간을 사랑하는 치열함을 안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다. 부끄러움이었다.

## 이희중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804-64. 국민주택 63호

### 「꽃 한 송이 숨겨놓고」

이국적 정취니, 남국의 파라다이스니 하며 떠벌리는 관광명소와 유명한 호텔들이 쌓여서 연분홍빛 신혼의 꿈만 떠올리게 하는 제주도 습습한 소금바람을 불어넣는 이가 있다. 한·립·화. 그녀의 이름을 가만히 입 속에 넣으면 한라산의 뻗뻗한 나무숲 사이에 핀 '고광'의 한라송다리를 부르는 말소리 같아 혀끝이 간지러워진다.

벌써 수해를 제주 이야기만 고집하는 그녀에겐 어떤 이유가 있을까. 50년 제주에서 태어난 향수? 바닷바람에 밀리는 이어도의 동경...? 그리움...? 아니다. 제주 여인이 제주를 고집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도 말이 되는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그 제주에 아무도 모를 꽃 한송이 숨겨놓을 바에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4·3에 핀 핏빛의 역적스럽지만은 않은 꽃망울을 지금도 가슴 뽐 속에 보듬고 그녀의 제주를 온몸으로 사랑하나 보다. 그 눈길이 여전히 곱고 선해서 책장을 넘기는 그 면면마다 잔잔한 바닷바람이 가슴을 훑었다.

제주의 모든것인 한라를 한손 안 손금보듯 환한 '태우리' 고광의 한라 사랑을 통해 보여주는 프랑스인 다(茶)신부와와 뽕뽕한 줄다리기. 처음엔 그의 몽블랑을 누르고 싶은 한라아들로서 더 많이 더 깊은 것을 보여주며 자랑하고있던 철부지 내 심정에서부터, 한라를 송두리째 빼앗길까 두려워 끝내내 한라송다리는 숨기고 도망치기까지 그의 섬사랑 이야기는 너무나 막막하게 가슴을 뻐갈라 차마 눈물 지울 수도 없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조심스레 돌아보게 했다. 차마 자랑할 수조차 없었던 한라송다리가 결국엔 일본인 이름이 붙여진, 돌아볼 우리의 역사가 아닌가 싶다.

한림화는 그 역사 속에서 질기게 버텨나가는 섬여인들을 사랑한 것 같다. 그래서 그녀의 글 곳곳에 드러나는 그 애정의 진한 표현은

삶이 허투루 보이는 요즘 사람들에게조차도 슬프고 눈물겹다. 그저 역세고 거칠다고 말하기엔 그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저 순하고 어여쁘다고 말하기엔 그 눈빛이 너무 절절한 자청비의 딸들. 그렇게 진한 애정으로 제주의 딸이 어머니 섬을 노래하는 섬소리는 어미가 자식을 재우는 자장가보다 더 정겹고 푸근하다. 토끼 하나하나에 제주말을 실어서는 마치 그들 둘만의 언어로 밀어놓는 나뭇 한 그녀의 마음 씩씩이가 웅장하다. 그것은 그녀의 가슴에 흠을 뚫어 고광의 한라송다리를 키우는 까닭일 게다. 정말은 살이 떨리도록 자랑하고픈 세상의 보물을 한켠에 숨겨둘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들끓는 가슴 애이며 두 손으로 싸 모아 쥐는 섬, 제주.

육지 사람들은 제주바다 저 너머에 이어도가 있으려니 생각한다. 그러나 한림화 그녀는 이어도를 속에 품은 제주여인이다. 심장 가득히 푸른 제주바다를 담고 목젖 끝에 이어도를 지켜 목청껏 제주를 노래하는 그녀가 섬이요, 바다인 한림화. 그녀는 남쪽바다 그 위 제주에 꽃 한송이 숨겨놓은 섬여인, 자청비다.

## 권윤삼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9번지 표준BD 803호

### 「4국시대-신비왕국 가야」

이 책을 펼쳐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하는 점이다.

엄연히 520년이라는 긴 역사를 통해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고, 그것을 일본에 전함으로써 일본문화가 눈뜰 수 있도록 기여했던 가야가 역사책과 교과서엔 단 몇줄로만 소개됐을 뿐 제대로 역사와 문화의 가치가 밝혀지고 있지 않았다.

어디 가야사뿐이겠는가. 고조선의 실체도 말할·왜곡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니 우리는 이 점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단절을 체험하게 된 일제하의 영향이 아직 우리 문화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것도 꺼림칙한데 한국의 강단사학이 사대식민사관에 사로잡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마저 왜곡된 역사관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잘못된

식민사관에 의해 먹칠됐던 우리 역사는 다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이럴 때일수록 역사 의식을 바로 갖는 민중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 본다.

이런 시기에 정통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법학박사이지만 한국의 강단사학이 사대식민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민기·어려운 엄청난 현실 때문에 「하나되는 한국사」를 썼다는 고준환 교수가 다시 「4국시대 신비왕국 가야」를 내놓아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의 필자는 머리말에서 지금까지 가야가 역사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것은 우리 민족이 주인정신을 잃었으며 가야를 병합한 승자로서의 신라가 기록을 말살했고, 그에 따라 김부식 등 사대식민사학자들이 역사를 조작·왜곡했으며, 8·15해방 이후에도 한국 강단사학을 지배하다시피 한 식민사학자들의 위면이 주된 이유라고 밝히면서 한편, 「일본서기」 등을 비롯한 일본사서들이 사실과 반대로 가야가 왜의 속국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임나일본부설」 등을 만들어 역사왜곡을 일삼은 것도 중요한 이유라 했다. 따라서 필자는 신비왕국 가야를 전면 복원하여 재조명하고, 진실에 바탕을 둔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가야인의 한을 풀어주며, 고대 한·일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를 밝힘으로써 세계 평화의 주축이 되는 동북아대륙 평화에 기여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신문·방송사 및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오래 잊혀졌던 가야가 민족자주사학자와 민족사에 관심있는 사회과학자, 재야사학자,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그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고 차츰 복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민족자주의식이 고양되고 있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살펴보면 김수로왕의 가야건국과 인도 아유타 공주와의 국제 결혼 그리고 가야토기·가야황차·가야금·신선도·철기문화 등 찬란했던 가야문화를 쉽게 이해하게 되고, 고구려 불교전래보다 324년이나 앞선 장유화상의 가야불교초전과 광개토태왕의 가야토벌이 흥미롭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북아의 풍운녀이며 김수로왕의 딸 묘견공주의 가야분국 왜국지배 및 아라가야 응신의 야마도건국, 한국 기마민족의 대거 왜국 진출이 깊은 관심을 끈다.

그냥 대충 읽어나갈 소설류는 물론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읽어야 할 만큼 어렵게 써어진 역사책도 아니다. 단지 역사에

대한 관심과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저 읽다보면 역사에 대한 참된 시각을 갖게 하고 보여진 문화보다는 숨겨져 있는 역사와 문화의 참뜻을 되새기게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야시대의 유물 유적 발굴과 문화자취에 대한 열거에서 탈피하고 있어 삼국시대로만 알고 있던 역사를 4국시대 역사의 질곡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벗겨지지 못한 역사의 두께가 드러나고 있어 그 가치가 돋보이고 있다.

### 이혜옥

수원시 권선구 평동 12-20(2/2)

### 「김약국의 딸들」

박경리씨가 60년초에 발표했다가 최근에 다시 출판되어 나온 「김약국의 딸들」은 남해안 끝머리에 위치한 통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금은 충무시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통영이라는 이름이 많은 곳에 남아 있다. 통영은 저자 박경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감정은 좀 특별했다. 뭐라고 할까. 마치 고향의 한가운데 서서 오가는 사람들이 내 뺨을 투박한 말들을 듣고 있는 듯했다. 특히 어릴 때 사용했던 말들이—내 스스로도 사투리라고 천박히 여기는—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들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에 가까운 어떤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간창골, 판데, 멘데, 안뒤산 등의 지명은 내가 어릴 때 뛰놀던 바로 그곳과 다르지 않다. 그런 까닭에 「김약국의 딸들」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사람에게서 잇고 지냈던 고향소식을 전해 듣는 듯한 묘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이 소설은 재미도 재미지만 무엇보다도 읽는이에게 한려수도에 널리 있는 이름없는 섬들 사이로 굽이치는 파도를 생각나게 할 만큼 삶의 힘(생명력)이 배어 있다. 김봉제·봉룡형제의 이야기에서부터 봉룡의 재취에서 난 성수의 죽음까지 과감한 생략으로 한 권의 소설을 구성해 내고 있다. 그만큼 이야기 흐름이 빠르고 거침이 없다. 소설 줄기를 이루는 것은 큰아버지인 김봉제가 하는 약국을 물려받은 김성수와 한실댁 사이에 난 다섯 딸들인 용숙, 용빈, 용란, 용옥, 용혜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바다 사람이 안고 살아가는 한과 몰락

해가는 한 가족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 있는 3, 40년대는 우리 민족사 중에도 가장 질곡이 심한 시기였다. 따라서 우리 민중들의 삶 그 자체도 질곡의 고비를 넘었으며 여기에 나오는 김약국의 집안 또한 다른 모양새일 수는 없었다.

일찍 시집가서 과부되어 삶이 굽질리는 큰 딸 용숙, 쓰러져가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와하는 둘째딸 용빈, 한돌이와 눈이 맞아 정분이 난 후부터 성불구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고 급기야 어머니인 한실댁까지 죽음으로 내몰아 미치고 마는 셋째딸 용란, 남편을 만나러 부산에 갔다가 일이 엇갈려 통영으로 다시 내려오는 길에 부산에서 통영을 오가는 윤선이 침몰해서 죽음을 맞는 넷째딸 용옥, 이들의 삶이 그들 할아버지인 봉제·봉룡의 삶과 맞물려 힘있게 그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딸들의 삶을 바라보는 한실댁을 통해 우리들 어머니 모습과,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김약국을 통해 우리들 아버지 모습까지도 처절하게 그려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김약국의 딸들」은 모름지기 소설은 이러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준다. 요즘 나오는 소설들은 대부분 힘이 없다. 딱 막힌 곳에서 억지로 씌어진 듯 상상속에서 머문다. 탈현대적(포스트모더니즘)이니 하는 말로서 변명을 하지만, 삶이 녹아 있지 않는 소설에 대한 어떤 변명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자신감 있는 문체, 과감히 줄여진 압축된 내용, 진득거리게 녹아있는 다양한 삶들,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김약국의 딸들」에서 나는 우리나라 소설의 미래를 본다.

### 성상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1동 117-21(24/8)

## 헵시바



많은 뜻을  
담고있는 이름입니다  
많은 일을  
도모하는 일터입니다  
많은 유익을  
드리는 동반자입니다

# 새로운 출판문화의 창출! 이것은 바로 헵시바의 바램입니다

#### 헵시바는?

- 전산식자 전문업체입니다.
- 여러가지 유용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그 유익을 사용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 동시작업으로, 작업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는 곳입니다.
- 출판문화인 모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곳입니다.

#### 헵시바의 프로그램은?

- 헵시바한글다듬기(교정프로그램)
- 컨버전프로그램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압축교정
- 전집류의 용어통일 작업 등

서울 중구 초동 155-1 덕양빌딩 603호  
전화 265-9240,1 · 팩스 263-1992

**여기** 전산식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